



## 엄마 손에 제 미래가...

태어나서 처음 와 본 투표소, 많아서 금급했나 봅니다. 신기한 듯 투표소 내부를 둘러보다가 참기 힘들었는지 엄마 등에서 빠져 나오려고 밤을 바둥거립니다.

엄마는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에 말입니다.

제 17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양 2동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을 지켜봤습니다. ‘짜히 뽑을 사람이 없는데 꼭 투표를 해야 하다’라는 망설임 속에서 그 데도 ‘덜 나쁜 사람이라도 뽑자’는 식으로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도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이까지 등에 업고 투표소를 찾은 아주머니의 심정은 어찌했을까요. 내 자식 컷을 때 조

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껏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달라진 것, 있었습니까. 기대

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5년전, 10년전, 15년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겪어본 경험

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포기는 하지 말아야죠. 새

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섬기는 정치를

펼 것인지. 세상이 조금 나아져 내

자식 커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말입

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

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알 것

아닙니까.

/최현기자 choi@

## I love MY student



박 선 영

###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박선영입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군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특수)반을 맡아 주시리구요. 선생님이라면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특수학급 경험도 없는 저에게 어떻게 그런~.”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 대상자를 담당해 본 경험 말고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내가 특수학급을 맡게 되었다. 설렘과 두려움과 기대로 맞이한 지난 3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를 생각했다.

가정방문을 했다. 정신지체 2급인 4학년 당시에는 엄마(정신지체)와 둘이서만 산다. 가정의 살림(경제활동)을 마을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당시엄마는 내게

“우리 당시 좀 잘 부탁합니다.” 했다. 가슴 찡한 모성본능에 눈물이 맹 돌았다.

노래를 가르쳤다. 가사를 읽을 수는 없지만 아주 큰소리로 정확한 음정으로 고개까지 흔들며 신나게 부르는 강이와 목소리를 알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없어하던 낭이도 내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어 가슴 칠했다.

운동회와 효도방학을 끝내고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국어 문자 익히기가 말짱 도루묵이다. 너무나 심난하고 한심해서 나도 모르게 “아~하이! 죽겠어!” 하고 발을 구르며 심난해 했더니, 우리의 강이가

##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불쌍했던지 “괜찮아 괜찮아!” 하며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거리 주었다.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이 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내게 나의 사부(?)가 한 수 가르쳐 준 몸짓이었다.

스승의 날 강이의 누나인 은선이 준 편지에는 “너의 동생은 장애인이지?” 하고 친구들이 물어서 “아니야, 약간 늦은 뿐이야” 했지만 고개를 돌리고 울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아요’ 하는 내용과 함께 동생을 보살펴줄 고맙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장애아를 둔 가족들의 어려움이 5학년인 어린아이를 통해 해야려진다.

아이들을 대리고 목욕을 갔다. 탕 안을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던 내내 따뜻해서 좋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은 엄마예요.”라고 내 팔에 얼굴을 대며 정이가 말했다. “학교서는 선생님이니까 바깥에서만 엄마라고 해야지!” 했다.

정이는 경기도에서 살았는데 3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 언니와 함께 할머니에게로 와서 7년째 셋이서만 살고 있으며 76세의 할머니는 농사를 짓는다.

“선생님 또 언제 와요?” 하며 순회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4학년 현이, 써놓은 이름이 지금은 괴랄개발이지만 머지않아 당당한 이름으로 쓰여 질 것을 기대해 본다.

나와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다섯 아이들, 혼자서는 무엇을 해결하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면서도 항상 맘折磨이고 머뭇거리는 아이들, 함께 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 볼 줄도 모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당당하게 자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해남 현산초교 교사〉



## 뉴스퀴즈 93·94회 김윤희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93·94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김윤희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24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93·94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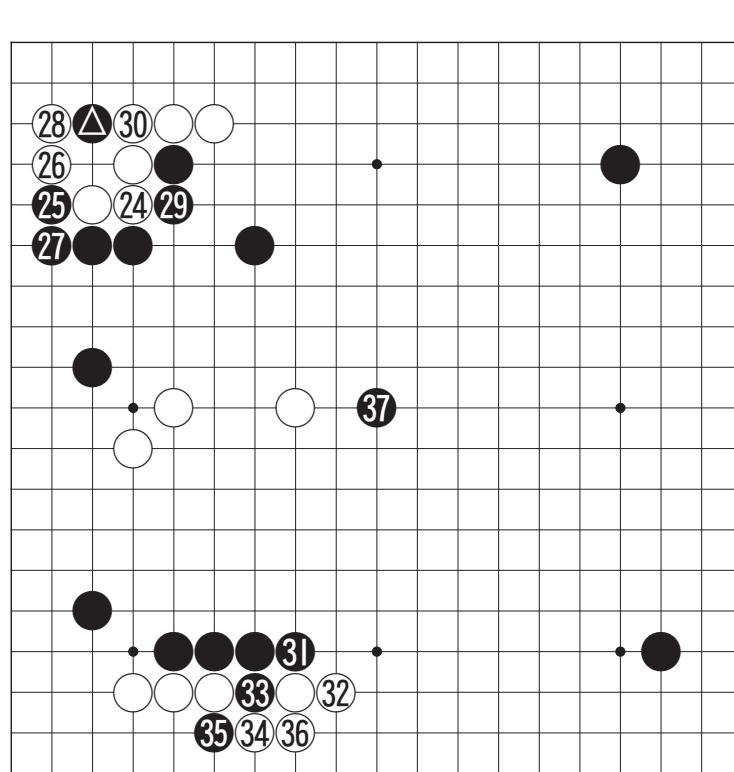
323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주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윤희·해남군 해남읍

2등 ▲곽영구·나주시 노안면



## 제88회 전국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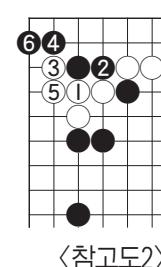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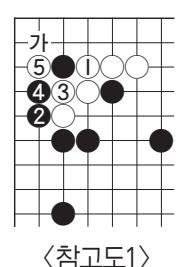
### 남녀 페어부 결승전

### 고도의 응수 타진

3보(24~37)

白 이용희 6단  
이선아 6단  
(서울)

黑 흥석의 7단  
김지은 6단  
(전남)



선의 응수였다. 이 수로 ‘참고도1’의 백 1로 잊고 5까 귀의 흑 한점을 잡는 데 급급하는 것은 최하책이다. 이 그림은 다음에 ‘가’의 끝내기 까지 남아 흑이 원하는 바다.

또 ‘참고도2’의 백 1로 두는 것도 흑 2로 끊어았을 때 곤란하다. 백 3으로 젖혀 잊더라도 6으로 내려서면 백이 불리한 쌍을이다. 그래서 백 30까 지 타협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흑은 일단 선수로 위쪽을 두텁게 한 다음 35까지 교환하고 37로 모자 를 씌워 기세좋게 공격에 나서고 있다.

백은 고심 끝에 24로 빈틈으로 치받았는데 이 수가 고육지책으로 최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바둑소식

### 허영호, 2007 마스터스 우승

허영호 6단이 24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2007마스터스 토너먼트 남자부 결승전에서 흥성지 5단을 265수 끝에 흑 3점 반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상금은 1천200만원.

허영호 6단은 그동안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우승, LG배·삼성화재배 본선 진출 등 각종 기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최근 2007한국바둑리그 챔피언에 오른 대구 영남일보팀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지난 12일 열린 여자부 결승에선 박소현 2단이 이민진 5단을 제압하고 정상을 밟았다. 마스터스 대회는 프로기사들의 연구수당을 기금으로 조성해 만들어진 대회다. /윤영기자 penfoot@

95. 미시시피 타임은 최근 ‘올해의 인물’로 러시아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흔한에 빠져 있던 러시아에 인정을 가져온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해 선정했다는 것이 리처드 스텔웰 타임 편집장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블라디미르 푸틴

②앨 고어

③힐러리 클린턴

④바락 오바마

##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5일(음 11월 16일 쯧)

**子** 36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지루하다. 48년생 희망의 진행은 계속 된다. 60년생 문서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제사가 순조롭다. 72년 생은 계획으로 일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는다. 84년생 모든 일에 경이로운 진취가 있으니 준비는 필수. 행운의 숫자: 14, 44

**丑** 37년생 절대최소·절대 실리를 찾아라. 49년생 미리서 신중한 계획을 유지하고 친환경을 살펴보라. 61년생 고행이 우려된다. 73년생 타인의 모략·사기를 만날 우려가 많으니 조심이 절실했을 듯. 행운의 숫자: 24, 16

**寅** 38년생 신고를 당하는 수도 있다. 50년생 책을 처음으로 배우고 화해 쪽으로 모색하라. 62년생 있는 것도 조심하라. 74년생 전국이면 대화 대손을 벗어나고 강제로 남은 선을 행하는 행운의 숫자: 21, 35

**卯** 39년생 놀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형상이다. 51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확실한 결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63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다. 75년생 중점을 잊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행운의 숫자: 18, 28

**辰** 40년생 지난 과거에 깨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풀어야 하다. 52년생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라. 64년생 지난 문서는 버리고 새 문서를 얻는다. 76년생 좋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17, 43

**巳** 41년생 외형최소·가내 실수·재정권 허리. 53년생 서로서 이해·양보·화해 쪽으로 노력하라. 65년생 내일을 위해서 인내함이 중요하다. 77년생 일에 강직을 만나거나 가족·친구와 협력한다. 행운의 숫자: 01, 31

**午** 42년생仲人의 협조가 새롭게 나타난 격이 있다. 54년생 투자는 미루라. 66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라. 78년생 불연이면 애인과 이별 할 수도 있으나 여심을 헤아려라. 행운의 숫자: 11, 38

**未** 43년생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다. 55년생 오랜만에 좋은 협조를 얻고 급진한다. 67년생 財破, 財破, 맹금이 우려된다. 79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잊지 말아야 손이 줄어든다. 행운의 숫자: 20, 30

**申** 44년생 생각하지 않은 협조자가 자제하니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56년생 도둑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68년생 미운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0년생 오늘은 눈을 감고 지내라.

**酉** 45년생 친체 속에 실수도 있으니 실망 말고 진행하라. 57년생 응기와 회방으로 추진하면 得財도 무난하다. 69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82년생 흥과 복이 증중하니 기도하고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2, 34

**戌** 47년생 회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니 금상첨화로다. 59년생 현재의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밭자취를 다시 돌아보라. 71년생 흥이 변하여 길이 된다. 83년생 오늘은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22, 3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브랜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1062>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A : Can I have a pizza with mushrooms and ham, and a 7-Up, please?